

# 전주, MICE산업 관광객 유치 추진

### 시, Asia Pacific MICE 비즈니스 페스티벌·전북 트래블마트 참가... 관광자원 홍보

전주시가 고품격 가치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회의 등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MICE 관광객 유치를 나선다.

전주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Asia Pacific MICE 비즈니스 페스티벌과 전북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MICE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지사), 태권도 진흥재단, 관광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업, 마이스업, 홍보관계자 등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회와 지역별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MICE 비즈니스 페스티벌과 전북 트래블마트에 참가하는 인바운드 여행사 등 여행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한 MICE 연계 여행상품, 전주-군산-부안-고창을 연결한 테마여행 10선 시

간여행상품, 개별관광객(FTT)을 위한 유네스코 전주 여행상품, 체험형 웰니스 관광상품 등을 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광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광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마이스(MICE) 산업과 관련해 연관 단체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MICE 행사와 연계된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하고 중소기업 MICE 유치를 위한 회의시설 및 숙박시설, 체험형 관광상품 등을 소개

해 미래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MICE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MICE 산업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전통문화와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회의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시장 세분화를 통해 MICE산업과 연관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20대 여성 대상 취업사기 일당 검거

사회초년생과 취업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1억3000만원을 가로챈 취업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박모(23)씨를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A(20)씨 등 8명으로부터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취업이 시급한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업체를 통한 대출을 받게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회사를 차려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투자하는 상권에 함께 투자하자고 하는 등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개강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수강생 32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교육과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교 텃밭 운영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 작물재배, 토양관리, 텃밭살수 등으로 교육생들이 수료 후 유기농업·종자·원에 등 기능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채규남 기자



‘반가운 봄비’ 봄비가 내린 15일 오전 어느 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완산구,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전주시 완산구가 술·담배 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완산구는 완산경찰서와 전북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전주지역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구는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학교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에 나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활동과 고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전기이륜차 60대 구매 보조금 지급

### 26~30일 신청 접수... 230~350만원 지급

전주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환경부 보급 평가 인증을 완료한 7종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최소 230만원부터 대형 350만원까지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수는 약 60대 분량으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는 2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등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이 줄고 대기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전기콘센트에서 3시간~4시간이면 100% 충전이 완료돼 전기자동차와 달리 충전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 하루 40km 주행 시 연간 연료비가 엔진 이륜차의 10%수준인 7~8만원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16일 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공고문을 게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에서는 판매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이다.

앞서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총 7대를 시범 구입해 현장 활동 부서에 배정, 기동성 있는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에너지전환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 아내 구타 후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아내를 구타하고 성폭행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5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0일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월 16일 자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증상을 입은 B씨는 다음날 17일 새벽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 기자

## 여대생 술 먹여 강제추행 대학 조교 입건

여대생에게 술을 먹여 강제추행한 대학 교직원인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이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주 한 대학 조교인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주시 금암동 한 술집에서 학생이었던 20대 여성 A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특정단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 마시기 싫었지만 조교가 예의 없더니 권해 안 마실 수 없었다”면서 “모델 싫으면 내가 사는 고시원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A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벼 대체 고추·마늘·양파 재배교육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15일~4월 26일까지 실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벼 이용 발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며 논 대체작물 개발

로 토지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추와 마늘, 양파 재배기술로 육묘와 토양관리, 병해충 및 생리장해, 수확 후 관리, 선진지 현장견학 등이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